

西源學派 醫家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진학교실¹

윤창열¹ *

A Study about medical doctors of the school of Seowon

Yoon Chang-Yeol¹ *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 In South Song era, Choe Ga-eon(崔嘉彦) built Seowonam(西源庵), lived as a hermit and communicated with Juja(朱子) in LuShan(廬山), JiangXi province(江西省), JiuJiang city(九江市). Maekgyeol(脈訣) written by him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forthcoming medical doctors, who took over his studies and were called the school of Seowon. Little information about his life and his successors encouraged this study.

Method : The core contents of Maekgyeol(脈訣), his life based on Waryongamgi(臥龍庵記) and Seowongamgi(西源庵記) written by Juja(朱子) and his successors on the basis of various medical books were investigated.

Result : The Seowonam(西源庵) is located at the entrance of xiufeng Scenic spot(秀峰景區) which is 6km west from center of Xingzi county(星子縣), JiangXi province(江西省), JiuJiang city(九江市). The points of Maekgyeol(脈訣) are inferring the symptom of wind, energy, cold and heat by categorizing seven exterior and eight interior pulse into four pulses of float, sink, slow and quick and diagnosing a disease of three warmer and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entrails by subordinating four pulses to Chon,Gwan, and Cheok(寸關尺). By writing the book of Sawonron(四原論) he clarified the clinical point, pulse, disease, symptom, treatment with learning the cause of a disease through pulse, understanding the symptom through a disease, and giving a remedy through a symptom.

Then he communicated with Juja(朱子) assigned to NanKangJun(南康軍) as a ruler. He helped Juja(朱子) to build Waryongam(臥龍庵) and Juja(朱子) wrote Seowonangi(西源庵記) for him.

Conclusion : The members of medical doctors of the school of Seowon were Choe Ga-eon(崔嘉彦) and his follower Yu Gae(劉開), Yugae's disciple Eom Yong-hwa(嚴用和) and Ju Jong-yang(朱宗陽) and Ju Jong-yang's disciple Jang Do-jung(張道中). They, who were famous for pulse, had contributed to advancing study of pulses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Seowongam(西源庵), the school of Seowon(西源學派), Choe Ga-eon(崔嘉彦), Yu Gae(劉開), Ju Jong-yang(朱宗陽), Eom Yong-hwa(嚴用和), Jang Do-jung(張道中)

1. 緒 論

廬山은 中國 江西省의 북부 九江市에 있는 名山으로 북쪽에는 長江이 흐르고 동쪽에는 鄱陽湖에 인접해 있다. 廬山은 匡山 또는 匡廬라고도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殷周시기에 匡氏 7형제가 이곳에서 結廬爲舍하여 수도를 하였고 뒤에 모두 신선이 되어 廬山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여산의 山勢는 秀麗하고 神秘하여 예로부터 “匡廬奇秀甲天下”의 美稱이 있고 1996년 “世界文化景觀”으로 批准되었다.

여산은 빼어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儒佛道の 精神遺産 및 詩人 墨客들의 人文遺産도 풍부하여 文化名山으로서의 명성도 간직하고 있다.

의학과 관련하여 삼국시대 吳나라의 董奉은 이곳에 와서 采藥煉丹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비를 받지 않고 살구나무를 심게 하고 살구를 곡식과 바꾸어 빈민을 구제하여 董仙杏林의 佳話를 남겼고 東晉의 葛洪은 中年에 여산의 洪井山 觀音崖에서 수도하고 仙丹을 治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후에 『抱朴子』를 저술하였다.¹⁾ 이와 더불어 남송시대의 崔嘉彦은 여산의 남쪽 西源庵(초기의 표기는 西源으로 되어 있고 張道中의 표기는 西原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底本에 따라 달리 표기하고자 한다)을 짓고 養生을 하면서 脈學을 정리하여 『脈訣』을 지어 후세의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당시 이곳 南康軍(지금의 星子縣)의 知事로 부임한 주자와 交流하여 주자가 그의 부탁으로 西源庵記를 써주었다. 그의 학문은 그의 제자 劉開를 통해 朱宗陽과 嚴用和에게 전수되었고 嚴用和은 『濟生方』을 지어 의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朱宗陽이 다시 張道中에게 전하여 그의 脈學은 후세에까지 면면히 전수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李時珍의 아버지인 李言聞은 최가언의 『脈訣』을 刪補하여 『四言學要』를 지어 지

금도 맥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必讀의 書로 자리잡고 있고 『東垣十書』의 첫머리에도 최가언의 『脈訣』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고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2. 西源庵의 위치

여산은 鄱陽湖가 장강과 합류하는 西岸에서부터 우뚝 솟아 동북쪽에서부터 西南쪽으로 뻗어 있는데 길이가 50餘里이고 폭이 20里 정도가 된다. 星子縣이 여산의 남쪽에 있고 九江市는 북쪽에 있다.

여산은 怪石, 秀水, 奇樹, 가파지른 절벽과 낭떠러지, 특이한 봉우리 등으로 유명한데 雲海, 瀑布雲, 寶光, 蜃景, 雪景 등을 廬山奇觀으로 손꼽는다. 명승지로는 錦繡谷, 仙人洞, 花徑, 五老峯, 三寶樹, 三疊泉, 龍潭瀑布, 含鄱口, 大天地, 小天地 등이 있고 산 아래의 명승지로는 東林寺, 白鹿洞書院, 獅子洞, 涌泉洞, 石門澗 등이 있다.

廬山에는 奇觀이 산재해 있지만 “廬山之美는 在山南하고 山南之美는 在秀峯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여기서 秀峯이란 香爐峯, 雙劍峯, 文殊峯, 鶴鳴峯 등의 솟아있는 群峯을 말하며 이 아래에 명승고적도 많다.

西源庵은 지금은 사라져 그 위치를 정확히 고증하기는 어려우나 이 秀峯景區의 근처가 아닌가 추측된다. 秀峯景區는 星子縣城에서 서쪽으로 6km지점에 있다.

廬山志에는 “萬壽山の 서쪽이 瘦馬嶺이고 瘦馬嶺의 동쪽이 烏石岩山이다. 烏石岩山の 동쪽이 石佛山이고 그 아래에 石佛寺가 있다. 石佛山의 동쪽이 幽邃山이고 幽邃山の 앞에 西源庵이 있다. 石佛寺의 서남쪽에 七尖山이 있는데 七賢峯이라고도 부른다. 七尖山の 동남쪽이 五乳峰이고 이곳에 절이 있는데 五乳寺와 法雲寺가 있다. 五乳峰의 동쪽이 臥龍岡이고 그 아래에 臥龍庵이 있다”²⁾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西源庵은 宋나라 崔嘉彦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 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3년 7월25일), 수정일(2013년 8월12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1) 錢定新組編. 千古文化廬山. 長沙. 湖南地圖出版社. 2004. p.86.

2)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上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p.318~322.

이 은둔해서 머무르던 곳이다. 朱子가 南康의 知事로 있을 때 그와 교류를 하였고 『西源庵記』를 지었다. 얼마뒤 최가언이 죽자 朱子는 또 詩를 지어서 그를 애도하였다. 서원암은 臥龍庵과 石佛寺 사이에 있다³⁾고 하였다.

3. 西源學派의 創始者 崔嘉彦

1) 生涯

최가언의 字는 希範 또는 子虛이고 原籍은 成紀 즉 지금의 甘肅省 天水市이다.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고 있었고 壯年에 巴東의 三峽에 머물다가 후에 江西의 廬山 西源庵에 집을 짓고 살면서 養生濟世하다가 宋 紹熙 2년(서기 1191년)에 80세로卒하였다. 젊었을 때 道士가 되어 神農과 老子의 道를 닦아 宋 徽宗이 紫虛라는 號를 下賜하였다고 하나⁴⁾ 휘종이 1127년 금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가 1112년 정도에 태어난 것을 고려해볼 때 믿기가 어렵다. 일찍이 정치에 뜻을 두어 농사를 지으며 전쟁을 해야 한다는 계책을 당시의 권력자 趙鼎(字 元鎮, 諡號 忠簡)에게 올렸으나 채용되지 않자 여산으로 들어와 은둔하였고 농사를 짓고 약초를 재배하면서 自給하였으며 나이가 70을 넘었지만 神明이 不衰하였다고 『朱子集』을 인용하여 『廬山志』는 말하고 있다.⁵⁾

2) 著述

최가언은 대략 1189년 『崔氏脈訣』(『崔眞人脈訣』, 『紫虛脈訣』, 『四言脈訣』, 『四脈玄文』, 『脈訣四言舉要』라고도 부른다)을 완성하였다. 이 글은 4言 682句 총 2728字로 이루어져 있는데 四言으로 된 韻語脈書의 효시가 된다. 그는 『難經』과 왕숙화의 『脈經』, 고양생의 『脈訣』등을 깊이 연구하여 『崔氏脈訣』로 총결한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夫脉者는 天真委和之氣也라. 晋王叔和는 以浮, 芤, 滑, 實, 弦, 緊, 洪으로 爲七表하고 微, 沉, 緩, 澀, 遲, 伏, 濡, 弱으로 爲八裡하야, 以定人之陰陽하며 以決人之死生이라. 然이나 文理甚繁하야 後學이 未能解라. 大抵持脉之道는 非言可傳이며 非圖可狀이니 其樞要는 但 以 浮, 沉, 遲, 數으로 爲宗하고 風氣冷熱主病이라. 且如浮而有力者는 爲風이오 浮而無力者는 爲虛며 沉而有力者는 爲積이오 沉而無力者는 爲氣며 遲而有力者는 爲痛이오 遲而無力者는 爲冷이며 數而有力者는 爲熱이오 數而無力者는 爲瘡이라. 更看三部면 在何部得之니 且如寸部는 屬上焦頭面胸膈之疾하고 關部는 屬中焦腹肚腸胃之病하고 尺部는 屬下焦小腹腰足之疾이라. 更看五臟이면 何臟得之니 六腑亦然이라. 學者當以意會而精別之면 庶無按寸推尺之誦라.

“대저 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조화된 기운이다. 진나라 왕숙화는 부규활실현긴홍한 맥을 칠표맥이라 하고 미침완삼지복유약한 맥을 팔리맥이라 하여 사람의 음양과 사생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글의 이치가 아주 복잡하여 후학들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체로 맥을 잡는 방법은 말로써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핵심은 단지 부침지삭으로 근본을 삼고 풍기 냉열의 병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浮하면서도 힘이 있는 것은 風症이고, 浮하면서 힘이 없는 것은 虛症이며, 沈하면서 힘이 있는 것은 積症이고, 沈하면서 힘이 없는 것은 氣症이며, 遲하면서 힘이 있는 것은 痛症이고, 遲하면서 힘이 없는 것은 冷症이며, 數하면서 힘이 있는 것은 熱症이고, 數하면서도 힘이 없는 것은 瘡症이 된다. 다시 촌관척을 보면 어느 곳에 병이 있는 지를 알 수 있으니 예를 들어 寸部는 상초 두면 흉격의 병이고 關部는 중초 복부 장위의 병이고 尺部는 하초 소복 요족의 병이 된다.

다시 오장을 보면 어느 장에 병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육부도 또한 그러하다. 학자들이 마땅히 뜻으로 이해하고 정밀하게 구별하면 단순히 촌맥을 보고

3)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上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319.

4) 天水市政務文史資料委員會編, 天水名人,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1998. p.131.

5)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上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590.

척맥을 눌러본다는 비난이 없게 될 것이다.”⁶⁾

위의 내용을 보면 浮沈遲數 四脈으로 강령을 삼고 있는데 간략하면서도 임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는 왕숙화가 24脈으로 분류하고 高陽生이 長脈, 短脈을 추가한 바탕위에서 다시 革脈과 牢脈을 최초로 논술하였다.⁷⁾

錢曾은 “紫虛『脈訣』1권은 句의 형식이 『蒙求』(당나라의 李瀚이 지은 책으로 어린이들이 독송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고대에서 남북조까지의 유명한 사람의 비슷한 언행을 둘 씩 배열하여 四字句의 운어로 기록하였다.) 와 같으니 처음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고자 한 것이다.”⁸⁾라 하였다.

『四庫全書總目』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崔眞人『脈訣』1권은 舊本에 紫虛眞인이 짓고 東垣老人 李杲가 校訂하고 評論했다고 하였다. 살펴보건데 자허진인은 송나라 도사 최가언이다. 陶宗儀의 『輟耕錄』에는 ‘송나라 淳熙 년간에 南康 崔紫虛 隱君 嘉彦이 『難經』6년에서는 浮沈만을 말하고 9년에서는 遲數만을 말하여 이 부침지삭을 근본으로 삼아 칠표팔리맥을 통합하여 만병을 총괄하였으니 바로 이 책이다.’ 라고 하였다. 송 이후 제가들의 목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焦竑의 『國史經籍志』에 처음 기록되었고 『東垣十書』에서는 책머리에 실었으며 이시진은 『瀕湖脈學』중에 附入하였다. 旁注의 評語가 정말 李杲가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명하거나 확신할 수가 없다.”⁹⁾

丹波元胤은 『中國醫籍考』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東垣十書』와 『醫統正脈全書』중에 歌括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고 全文은 종래로 알 수가 없었다. 秘府에 소장된 명나라 때 베껴 쓴 『幼幼新書』附錄의 脈書五種의 首編이 최씨의 원서로 자허진인『脈訣秘旨』라고 쓰여져 있다. 지금 여기에 쓰여진 말을 기록하여 잘못을 바로잡는다.”¹⁰⁾

이 책은 내용이 비록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해하기 쉽고 암송하기 쉽게 歌訣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실용적이어서 후인들의 중시를 받았다. 명나라 때 李言聞은 이를 補訂하여『四言學要』라고 개칭하였고 그의 아들 李時珍은 그의 저서 『瀕湖脈學』속에 輯錄하였다. 李中梓도 이를 增益하고 修飾했지만 그 기본을 크게 벗어나지는 아니하였다.¹¹⁾

최가언은 또 唐나라 말기에 杜光庭(字 聖賓, 號 東瀛子, 又號 廣成先生, 절강성 括蒼人)이 지은 『玉函經』에 注를 달았는데 現存하고 있다. 『옥함경』은 맥의 이치를 專論하고 五色을 변별하였으며 五氣를 관찰하였는데 말은 간략하지만 뜻이 깊었다. 본서는 최가언의 상세한 주석을 통해 그 근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¹²⁾

이 외에 “자허진인 『四原論』 1권이 있는데 四原은 原脈, 原病, 原證, 原治이다.”(여기서 原은 근원을 밝히다의 뜻이다.)라 하였고 또 『天元入藥鏡』의 저술이 있다¹³⁾고 하였으나 모두 후세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 『寶素堂藏書目錄』에는 최가언의 『脈經秘旨』 1권이 있다¹⁴⁾고 기록되어 있으나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최가언의 『맥결』에 주석을 단 책으로는 王道純(清代人, 관적과 생졸년은 미상)이 注를 단 『脈訣四言學要注釋』과 失名人의 『崔眞人脈訣詳解』는 모두 현존하고 있으나¹⁵⁾ 王元標(字 赤霞, 明末 江蘇 上元人)가 지은 『紫虛脈訣啓微』는 전해지지 않는다.

3) 朱子와의 교류

朱子は 孝宗 淳熙 5년 (1178년 49세 때) 史浩의 추천으로 南康軍(지금의 강서성 星子縣)의 知事가 되었다. 다음해 3월 부임하여 白鹿洞書院을 중건

p.207.

- 11)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0. p.967.
- 12)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84, p.786.
- 13)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中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616.
- 14)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91.
- 15)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90.

6)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89.
7) 天水市政務文史資料委員會編. 天水名人.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1998. p132.
8)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89.
9) 永塔等編.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p.883.
1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하였고 1182년 3월 임기가 되어 南康軍을 떠났다.

먼저 朱子가 淳熙 庚子年(1180년) 겨울 11월에 쓴 『臥龍庵記』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臥龍庵은 여산의 남쪽 五乳峰의 아래에 있다. 나는 어렸을 때 楊龜山이 쓴 詩를 읽어본 적이 있다. ‘臥龍에 劉道人이 있는데 (宋初의 인물인 듯하나 이름과 기타 사적은 알 수가 없다) 은거하여 辟穀을 하여 나무열매를 따먹고 시냇물을 마신다. 이미 100살이 넘었는데 정신이 맑고 눈이 과랴다. 손님이 이르면 문득 먼저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니 본래 이미 臥龍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략…… 나는 그것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된 것을 애석하게 여겼고 인적이 끊어진 깊은 곳에 있어 수레나 말이 오지 않아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때 조정에 글을 올려 知事職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고 녹봉 10만錢을 지출하여 서원암에 은둔해 있던 최가언에게 부탁하여 와룡암 옛터에 집을 짓게 하고 면직의 명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옮겨가서 살려고 하였다. 또 臥龍潭이라 이름한 뜻에 의거하여 (와룡암 옆에 와룡담이 있다) 漢나라 승상 제갈량의 초상을 그려 집안에 안치하였는데 내 친구인 張敬夫(南軒 張栻)가 일찍이 詩를 지어서 그 일을 기록하였다……후략”¹⁶⁾

위의 내용을 보면 朱子가 남강군의 知事로 오기 전에 楊時의 『龜山集』을 통해 미리 여산에 臥龍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남강군에 부임해서 臥龍庵을 찾아보니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치가 좋고 인적이 드물어 벼슬을 그만 둔 후 이곳에 머물 생각으로 최가언에게 부탁하여 臥龍庵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 뒤 주자의 면직 요청이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지가 바뀌어 그곳을 떠나 주자는 이곳 와룡암에서 살지는 못하였다.

이어서 朱子가 崔嘉彦에게 써준 西源庵記의 내용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西源庵記

余少好佳山水甚이나 而自中年以來로 卽以病衰하여 不克逞其志于四方이라. 獨聞廬阜奇秀甲天下하여 而崎人逸士 往往徜徉于其間하고 常欲一往游焉而未暇也러라. 前年蒙恩試郡하여 在此山之陽에 乃間以公家職事로 得至其中이라. 其岩壑幽深하고 水石奇怪하여 固平生所創見이오 而于岩壑水石之間에 又得成紀 崔君焉하니 乃信前所聞者之不誣也라. 君名은 嘉彦이오 字子虛니 少慷慨有奇志하고 壯歲에 避地巴東三峽之間하여 修神農 老子術이라. 東下吳越하여 以耕戰之策으로 干故相趙忠簡하여 趙公是之나 會去相하여 不果行이라. 君自是로 絕迹此山하여 按陳令舉所述圖記하여 得西源庵故趾于臥龍瀑水之東하여 築室居焉이라. 耕田種藥하여 僅足以自給할새 而四方往來之士가 皆取食焉하고 其疾病老孤와 無所與歸之人至者면 亦收養之라. 蓋年逾七十矣나 而神明筋力은 不少衰하고 余往造之에 而君不予避也라. 一旦爲予道說平生하고 相與太息이라. 會予結屋臥龍하고 以祠諸葛丞相할새 世蓋少識其意者나 君獨嘆曰 “此奇事也.”라 하고 相與經紀其事하여 以迄有成이라. 兩年之間에 相見者不知其幾나 而君未嘗一言及外事라. 予以是로 益嘉君之爲人하고 而重嘆其既老하여 無所復用于世也라. 淳熙辛丑閏月之晦에 予既罷郡하고 來宿臥龍할새 君曰 臥龍之役을 夫子既書之矣나 顧西源은 獨未有記하니 復能爲我書之乎아 予曰 諾哉라 하고 于是에 悉次其說俾刻焉하니라.

*慕 : 지극할 기. *逞 : 쾌하게할 령, 다할 령. *崎 : 奇와 同字. *逸 : 숨을 일, 달아날 일. *徜徉 : 徜徉과 同. 노닐. 배회함. *故趾 : 故地の 뜻인 듯. *一旦 : 어느날. *道說 : 이야기 함. *經紀 : 경륜하여 다스림. *迄 : 이를 흘, 마침내 흘.

“나는 어려서 부터 아름다운 山水를 몹시도 좋아했으나, 중년 이후로는 병들고 몸이 쇠약하여 뜻대로 이리 저리 다닐 수가 없었다. 오직 여산의 뛰어난 경치가 천하에서 최고라서 奇人과 逸士들이 자주 그곳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유람을 가고 싶었으나 여가가 없었다. 지지난해 (1189년)에 은혜를 입어 郡의 책임자가 되어 이 여산의 남쪽에

16)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下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p.542~543.

간간히 공무때문에 올 때가 있었다. 바위 골짜기가 운치가 있으면서도 깊고, 물과 바위가奇怪하여 정말로 평생에 처음 보는 곳이요 바위 골짜기와 水石 사이에서 成紀(감숙성天水市)의 崔君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전에 들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崔君의 이름은 嘉彦이고 字는 子虛니 어려서 부터 분명히 큰 뜻을 품고 있었고 장년에는 巴東三峽의 사이에 숨어 지내면서 神農과 노자의 술법을 닦았다. 동쪽의 吳越 땅으로 내려 와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싸워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전에 재상을 지냈던 趙忠簡(趙鼎)에게 건의를 하여 趙公이 옳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재상직을 그만두어 행하여지지 못하였다. 崔君은 이로부터 이산에 은둔하여 陳令舉(본명은 舜俞이고 字가 令舉이다. 절강 嘉禾人. 劉凝之가 지은 『廬山記』를 5권으로 增補했고 또 『俯視圖』를 지어 여산을 소개했다.)가 기술한 圖記에 의거해서 서원암 옛터를 와룡폭포의 동쪽에서 찾아 집을 짓고 살았다. 농사를 짓고 약초를 재배하여 겨우 자급자족을 할 때 사망에서 왕래하는 선비들이 모두 이곳에서 밥을 먹었고 병들고 늙고 외로운 사람들과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또한 거두어 길러 주었다. 대략 나이가 70은 넘었으나 정신과 근력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고 내가 갔을 때도 그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어느날 나에게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고 큰 한숨을 쉬었다. 마침 나는 와룡암을 짓고 제갈량의 사당을 만들어 모실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나의 뜻을 알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崔君만이 홀로 탄식하여 이르기를 “이는 특기할만한 일이다” 라고 하고는 나를 위해 그 일을 맡아서 다스려 마침내 완성을 하였다. 2년 사이에 서로 만나 본 것이 수없이 많았으나 그는 한번도 바깥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이 때문에 崔君의 사람됨을 더욱 아름답게 여겼고 이미 늙어서 다시 세상에 쓰여지지 않는 것을 거듭 탄식하였다. 淳熙 신축년(1181년) 윤달 그믐날 내가 郡의 업무를 끝내고 와룡암에 와서 잘 때 君이 말하기를 “와룡암의 일에 대해서는 『와룡암기』를 지어 당신께서 이미 기록을 했는데 다만 서원암은 아직 기록을 하지 않았으니 다시 나를 위해서 써줄 수 있는가” 내가 “좋다”라 하고는 이에

그 내용을 모두 차례대로 기록하여 비석에 새기게 하였다.”¹⁷⁾

위의 내용에서 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朱子가 와룡암에 제갈량의 초상을 모시고자 할때 최가언이 적극 찬동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와룡암의 건축을 담당한 내용이다. 『廬山志』는 沈越의 『聞見雜錄』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朱子가 일찍이 와룡암을 짓고 공명의 제사를 지냈다. 木像은 朱子가 세운 것이다. 그때의 門人들은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대개 주자의 뜻은 高宗이 남쪽으로 도망간뒤 江東의 한 구석을 편안히 여겼다. 쇠락하고 무너져 버렸지만 떨쳐 일어나 疆土를 회복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갈공명에 각별한 뜻을 두었던 것이다.¹⁸⁾

위의 내용을 보면 漢나라의 옛땅을 수복하고자 한 공명의 뜻을 계승하여 朱子도 金나라에 빼앗긴 중원땅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최가언도 그러한 주자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 부터 큰 뜻을 품었다고 했고 趙鼎에게 耕戰之策을 올렸으나 채택 되지 않자 여산에 은둔하게 되었다는 내용등을 미루어 볼 때 수궁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최가언이 脈에 정통한 의가였을 뿐만 아니라 憂國의 마음을 가졌던 志士였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

4. 崔嘉彦의 初傳弟子 劉開

최가언은 여산의 西源庵에 있을때 劉開에게 醫術 및 脈學을 口傳心授하여 훌륭한 醫家로 길러 내었다. 劉開의 字는 立之요 南康縣사람이다. 불교와 노자의 학문을 공부했다. 일찍이 여산을 유람하다가 異人(최가언이다)을 만나 太素之訣을 전수 받아 사람의 生死를 미리 알수가 있었고 診脈을 하면 그 증상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이 그를 劉三點, 神醫 라고 불렀는데 三點은 寸關尺의 三部를 말한

17)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下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541.

18)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上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322-323.

것이다. 『南康府志』에서는 元나라 임금이 대궐로 불러 復眞先生이란 號를 下賜했다고 했는데¹⁹⁾ 유개가 1241년에 쓴 책의 跋文이 있고 그의 제자 엄용화가 1253년에 『濟生方』서문을 쓴 것으로 보아 믿기 어렵다. 몽고가 元이라는 국호를 쓴 해는 1271년이기 때문이다.

『名醫類案』에는 다음과 같은 임상례가 기록되어 있다. “府判의 딸이 出産이 안되어 죽게 되어 이미 斂까지 한 상태였다. 劉開가 紅花를 진하게 달여 걸상 위에다 부축하여 누이고 형집을 탕속에 담가 産門을 막고 연속하여 천위에다 물을 붓고 그릇에 물을 담아 따뜻하게 하면서 물을 뿌리니 한참이 지나서 깨어나고 아들을 낳았다. 이는 嚴冬에 피가 차가 와져서 응체되어 흐르지 못하다가 따뜻해지면서 순산을 한 것이니 역시 신비스런 치료법이다.”²⁰⁾

추함에 西古山에 장례를 지냈고 孫岳이 그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危亦林이 지은 『世醫得效方』에서는 “劉三點은 臨康人이고 南豐의 危子美(達齋 危亦林的 伯祖)가 그의 학문을 이었다”²¹⁾고 하였다. 臨康은 南康의 잘못인 듯하다.

著書로는 『宋史·藝文志補』에 『復眞劉三點脈訣』1권, 『脈訣理玄秘要』1권, 『醫林闡微』1권, 『傷寒直格』5권이 있다 하였다. 『中國醫籍考』등 다른 책에서는 『方脈學要』, 『脈訣元微』, 『太素脈訣』, 抄本인 『復眞子劉先生脈法』, 『已效方』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²²⁾ 現存하는 책은 없다. 『傷寒直格』은 劉完素가 지은 책과 이름이 같은데 유원소의 책은 現存하고 있다.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에 있는 『脈訣理玄秘要』의 跋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유개는 여산의 촌사람이다. 山林에 묻혀 살아 세상에 쓰임이 되지도 못하고 지식과 견문이 부족하고 말이 촌스러우니 어찌 남의 스승되는 것을 감당하리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장부를 진찰할 수 있어 『脈訣』을 지어 門人과 弟子들을 가르치고

의학에 들어가는 길로 삼았다. 만약 근원에 깊이 나아가고 오묘한 뜻을 널리 연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훌륭한 선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嘉熙 5년 上巳日に 후학 劉開는 쓰다”²³⁾

아주 겸손한 말로 쓴 위의 글을 보면 유개는 스스로 여산 사람이라 하였으니 南康사람이 확실한 듯하고 嘉熙 5년은 淳佑元年인 1241년에 해당함으로 그가 元나라 사람이 아니고 南宋사람이 되는 것도 확실하다.

5. 崔嘉彦의 再傳弟子 朱宗陽과 嚴用和

1) 朱宗陽

朱宗陽에 대한 내용은 그의 제자 張道中이 쓴 『玄白子西原正派脈訣』의 서문과 陶宗儀의 『輟耕錄』에만 보이는데 張道中の 서문 내용은 張道中條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輟耕錄』의 내용만 살펴보고자 한다.

“崔子虛가 隱居 하였다 …… 九道六極의 차이와 삼초 오장의 구별, 그리고 맥을 짚는 방법, 병을 치료하는 처방 등 현묘한 내용 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四脈玄文』 및 『西原脈訣』 등의 책은 세상에 비 밀리에 전수되었다. 처음 隱君은 劉復眞先生에게 전하고 復眞先生은 朱宗陽煉師에게 전하고 煉師는 張玄白高士에게 전하였는데 지금 가끔 그 법을 얻은 자가 있으니 배우는 자들은 이것을 구할 것인저.”²⁴⁾ 위의 내용을 보면 朱宗陽은 劉開의 제자이고 張道中の 스승이 분명하다. 朱宗陽의 이름은 脈明 혹은 永明이고 號가 宗陽 혹은 煉師 인 듯하다.

2) 嚴用和

엄용화의 字는 子禮 이고(어떤 책에는 이름이 子禮 이고 字가 用和라고도 하였다) 廬山人 이다. 그가 1253년에 쓴 『濟生方』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09.

20) 江瓏,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34.

21) 危亦林, 世醫得效方, 서울, 醫聖堂, 1990, p.12.

22)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209~210.

23)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207.

24)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中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616~617.

“나 用和는 8살부터 책읽기를 좋아하여 12살에 劉復眞 선생의 문하에서 受學 하였다. 오직 나의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여 면전에서 알려주고 마음으로 전하여 17살이 되었을 때는 사방의 사대부들이 진료를 구하여 발길이 이어졌고 이제 의학을 공부한지 30여년이 되었다.”²⁵⁾

또 그가 1267년에 쓴 『續方』의 서문에는 임상을 한지 50여년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그는 南宋 말기의 의가로써 『濟生方』과 『濟生續方』의 저서 만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濟生方』의 서문에서 의학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脈病證治의 4가지의 요묘함에 통달해야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미묘한 점은 脈에 있으니 상세히 살펴야 하고, 살펴는 데 이치가 있으니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병의 원인을 알면 그 증상을 알 수 있고, 이미 그 증상을 알았다면 그 치료를 다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최가언의 『四原論』인 原脈, 原病, 原證, 原治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원학과의 맥을 기본으로 병과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를 행하는 핵심내용이다. 危亦林도 『世醫得效方』의 첫머리에 集脈說, 集病說, 集證說, 集治說을 기술하고 있는데 脈病證治의 이론은 최가언에게서 시작되어 口傳心授된 서원학과의 핵심 이론인 듯하다.

呂復은 그의 의학을 “嚴子禮醫는 如歐陽詢寫字하여 善守法渡나 而不尚飄逸하니 學者가 易於摹倣이나 終乏漢晉風度라”²⁶⁾고 평가한 것을 보면 그는 융통성은 좀 부족했지만 원리원칙대로 임상에 입한 훌륭한 의가였음을 알 수가 있다.

6. 崔嘉彦의 三傳弟子 張道中

張道中の 號는 玄白子 이고 元 나라 淮南人이다. 그는 『玄白子西原正脈派訣』의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송나라 淳熙 년간(1174~1189)에 주자가 南康軍

의 知事가 되었을 때 은거해있던 최자허 嘉彦이 西原山에 암자를 짓고 있었는데 별도로 와룡암을 지어 그 안에 제갈공명의 화상을 그려 붙이니 최가언과 자신이 좌우에 있게 되었다. 때로 오고가면서 養生과 濟世의 방법을 물었다. 최가언은 계책을 올려 당시의 벼슬이 높았던 趙唯相에게 쓰여지기를 구했으나 채택이되지 않자 편안한 마음으로 숨어지내던 자로 養生濟世는 진실로 그 여생의 남은 일이 었다. 朱文公도 역시 이를 알고자 하여 口傳心授 했으나 마침내 復眞선생 유개가 이를 계발하여 실행하였다. 지금 兩山 남북의 명인들이 모두 유개로부터 말미암았으나 나의 스승 宗陽 朱煉師 脉明은 가장 잘 전해 받은 자이다. 大德 신축년(1301년)에 煉師에게서 崔·劉의 四脈을 배워 터득했고 내가 다시 그 뜻을 넓혀 그림을 그리고 아울러 歌括을 지어 어린아이들이 의업을 익힐 때 책머리의 그림으로 인해 힘들어 하지 않도록 하였다. 玄白老人은 쓰다.”²⁷⁾

위의 내용에는 자신이 최가언 유개 주종양으로 내려오는 脈學의 정통을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는데 자신이 지은 책의 이름에도 西原이란 글자를 넣어 그의 학문이 최가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그는 『玄白子相類脈訣』도 지었는데 “내가 『脈經』을 읽을 때 항상 10가지의 비슷한 맥으로 그 뜻을 분석했는데 또 맥이 서로 비슷한 것이 오히려 이에 그치지 않음을 한스럽게 여겨서 의심스러운 맥을 韻語로 지은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이외에 『脈法微旨』1권, 『玄白子診脈八鍛錦』1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4冊은 현재 모두 전해오지 않고 있다.

7. 結 語

西源學派 醫家들에 關하여 研究 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25) 王道瑞, 申好眞主編. 嚴用和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6. p.3.

26) 王紹增, 張天柱主編. 醫古文百篇釋譯. 哈爾濱,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95. p603.

27)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99.

28)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99.

1. 西源學派는 崔嘉彦이 廬山의 남쪽에 西源庵을 짓고 著書하고 弟子를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는 西源庵脈學類派의 祖師가 된다.

2. 西源庵의 위치는 江西省 九江市 星子縣城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秀峰景區의 입구로 추정된다.

3. 崔嘉彦『脈訣』의 특징은 七表八裡脈을 浮浸遲數의 四脈으로 總括하여 風氣冷熱을 판단하고 이를 寸關尺에 예측시켜서 삼초와 오장육부의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4. 崔嘉彦은 당시 南康軍의 知事로 부임해 왔던 朱子와 交流하여 주자가 臥龍庵을 짓는 것을 돕고 하였고 朱子는 그를 위해 西源庵記를 지어 주었다.

5. 劉開는 崔嘉彦의 初傳제자로 神醫, 劉三點으로 불리웠으며 그의 저서는 현존하는 것은 없고 그의 학문은 朱宗陽과 嚴用和에게 계승하였다.

6. 朱宗陽은 劉開의 弟子로 生涯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7. 嚴用和는 劉開의 弟子로 『濟生方』과 『濟生續方』을 지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강조한 脈病證治의 임상요령은 최가언의 『四原論』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것이 서원학파에서 口傳心授된 핵심내용이라 사료된다.

8. 張道中은 朱宗陽의 弟子로 脈理를 그림으로 그리고 歌括로 만들어 초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相類脈을 歌訣로 만들어 후세에 전했지만 지금은 전해오지 않는다.

3. 嚴世芸編著. 中國醫籍通考 ①. 서울. 醫聖堂. 1993. p.784, p.786, p.799. pp.789-791.
4. 永塔等編.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p.883.
5.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上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p.318-323. p.590.
6. 吳宗慈編撰. 胡迎建 외 2인 校注. 廬山志下冊.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p.541-543.
7. 王道瑞. 申好眞主編. 嚴用和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6. p.3.
8. 王紹增. 張天柱主編. 醫古文百篇釋譯. 哈爾濱.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95. p.603.
9. 危亦林. 世醫得效方. 서울. 醫聖堂. 1990. p.12.
10. 錢定新組編. 千古文化廬山. 長沙. 湖南地圖出版社. 2004. p.86.
11.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0. p.967.
12. 天水市政協文史資料委員會編. 天水名人.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1998. pp.131-132.
13.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中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616-617.
14.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209-210.

參考文獻

1. 江瓏.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34.
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207.

